

忠清南道支部編

대전시 연혁

대전은 삼한시대의 최고 문화지인 마한의 북변지로서 삼국시대엔 백제의 우술현에 속하였다가 백제, 신라, 고구려가 삼국통일의 패전을 다투더니 신라 30대 문무왕때 (서기 660년) 당의 힘을 얻어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자 곧 신라에 병합되어 태주 (공주)에 속했다가景德왕 16년 (서기 757년)에 주, 군현을 재정비하게 되매 그때 대전은 북 풍현에 속한 바 있었고 고려 8대 현종 9년에 주, 군, 현의 개편이 있었는데 이때 공주군 관하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조 제 4대 세종때 회덕현, 진잠현 및 공주군 일부를 병합하여 대전군이라 칭하고 원의 남면 중앙지대 시가지 5.7km² 를 획하여 대전면으로 확정되어 비로소 집단 생활의 면모를 갖춘 취



해방전 시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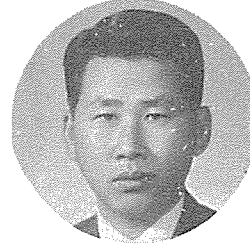
忠南支部 任員陣



지부장 양 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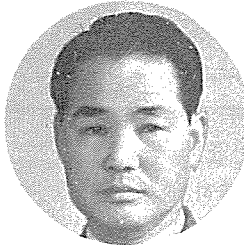
간 사 최 응현



간 사 이 원우



간 사 남 해현



간 사 조 정환



간 사 신 기현

락으로서 발족을 하게 되었으며 다시 일제하 1917년 10월 면제 실시와 더불어 지정면으로 되었으며 이때 인구 6653명으로 인구밀도 겨우 116인쇄 불과하였으며 서기 1926년 3월 다시 구역 확장으로 외남면 일부를 편입하여 면적은 16.36km²로 늘고 인구는 14,930명으로 증가하였다.

서기 1931년 4월 읍면 제도의 실시에 따라 대전읍으로 개칭, 거주인구 23,284명으로 읍세는 점차 발전하여 서기 1932년 10월 11일에 충청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자 대전읍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충청남, 북도의 정치·경제·문화의 요지가 되었다.

서기 1935년 10월 1일 부제 실시와 더불어 대전부로 개칭되고 남한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당시의 인구는 36,379명으로 인구밀도 2,223명에 달하였다.

1940년 11월 11일 다시 구역을 확장하여 외남면

대부분과 유천면 일부를 편입하므로 면적 35.71km²에 인구는 배로 늘었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자유를 찾아 이곳으로 집결되는 이북 동포들로 인구는 급증되고 서기 1949년 8월 15일 지방 자치제 실시에 따라 현재의 시제로 되어 대전시라 칭하고 당시 인구 126,704명에 22,338가구가 상주하여 인구밀도 3,548명에 달하였다.

1963년 1월 1일 시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군 유천면 회덕면 대화리, 오정리 및 용전리와 산내면 옥계리, 삼정리 및 호동리가오리의 편입으로 면적 79.19km²로 대폭 확장되었으며 이때 인구는 268,806명으로 전국 제 6위의 대도시로 군림케 되었고 인구밀도 3,394명으로 전국 제 4위의 조밀한 도시로 성장케 되었다. 그 후 내무부 시행 지방 행정구역 면적조사에서 79.19km²의 면적이 88.09km²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